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한문영역 프랑스어 I 정답 및 해설

01. ③ 02. ① 03. ③ 04. ① 05. ② 06. ① 07. ④ 08. ③ 09. ② 10. ⑤
11. ② 12. ③ 13. ③ 14. ⑤ 15. ② 16. ① 17. ④ 18. ④ 19. ⑤ 20. ①
21. ⑤ 22. ① 23. ④ 24. ④ 25. ⑤ 26. ⑤ 27. ③ 28. ② 29. ⑤ 30. ③

[1~5] 발음 및 어휘

1. 비모음 [ʒ]의 발음

Ton prénom? 네 이름은?
[pʁənɔ̃]

- ① homme [ɔm] ② pomme [pɔm] ③ saison [sɛzɔ̃]
④ automne [ɔ[ɔ]tɔn] ⑤ monsieur [mɛsjø]

정답해설: 밑줄 친 철자 'om'의 발음은 [ʒ]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 있는 낱말은 ③번이다.

정답 ③

2. 철자를 조합하여 낱말 찾기

mer village campagne montagne

- ① amie 친구 ② chat 고양이 ③ film 영화
④ main 손 ⑤ voix 목소리

정답해설: □ 안에 들어갈 철자는 각각 'mer'의 'e', 'village'의 'i', 'campagne'의 'm', 'montagne'의 'a'이다. 따라서 이 철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은 답지 ①의 'amie'이다.

정답 ①

3. 어휘-명사

A: 너는 오늘 저녁에 Stromae를 보러 갈거야?

B: 응. 이번이 그의 마지막 서울 콘서트야. 반드시 가자.

- ① 옆면 ② 발 ③ 값 ④ 한가운데 ⑤ 성공

정답해설: 대화 맥락상 B의 빈칸에는 'à tout ...'의 형태로 '반드시'를 의미하는 부사가 들어가야 한다. 답지 ③의 'prix'는 값을 의미하는 명사이며, 'à tout prix'의 형태로 '반드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4. 어휘-형용사

A: Marseille까지 차로 가려면 반나절 꼬박 걸릴 거야.

B: 응.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

- ① 상당한/적절한 ② 부드러운 ③ 큰 ④ 긴 ⑤ 가득 찬

정답해설: 대화 맥락상 A의 대사 빈칸에는 '꼬박'을 의미하는 어휘가 들어가야 하고, 이에 답하는 B의 대사 빈칸에는 '일찍'에 해당하는 어휘가 들어가야 한다. 답지에 있는 형용사들 중에서 'bon'은 'demi-journée'와 같은 명사 등과 결합하여 '꼬박, 족히'의 의미를 갖고, 'de bonne heure'은 관용적 표현으로 '일찍'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형용사는 답지 ①이다.

정답 ①

5. 어휘-동사

- 이 화창한 날씨가 우리를 산책하도록 (a)이끈다.
○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테이블로 (b)안내하겠습니다.

- | | | | |
|--------|------|-------|------|
| (a) | (b) | (a) | (b) |
| ① 돌려준다 | 가져온다 | ② 이끈다 | 안내한다 |
| ③ 준다 | 찾는다 | ④ 남긴다 | 보여준다 |
| ⑤ 든다 | 허락한다 | | |

정답해설: 첫 번째 문장의 빈칸에는 의미상 화창한 날씨가 우리를 산책하도록 '이끈다/유도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한다. 답지의 동사들 중에서 이러한 의미를 표현하는 동사는 'inviter'이다. 또한, 두 번째 문장의 빈칸에는 맥락상 '안내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들어가야 한다. 프랑스어에서 'conduire'는 어떤 장소로 누군가를 '안내하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빈칸 (a)에 들어갈 동사는 'invite'이고 (b)에 들어갈 동사는 'conduis'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6~21] 의사소통 기능

6.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나 슈퍼마켓에 가. 나한테 자전거 빌려줄 수 있어?

B: 응. 기꺼이.

A: 고마워.

- ① 기꺼이 ② 유감이야 ③ 나는 선약이 있어
④ 괜찮아 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정답해설: A의 자전거를 빌려달라는 요구에 대해 B가 '응'이라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이어지는 빈칸에는 B의 수락의 표현이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

다.

정답 ①

7. 대화 내용 이해하기

엄마: 여보세요, Elsa? 너 수업 끝났니?
Elsa: 네, 집에 가요.
엄마: 내가 오늘 저녁에 늦게까지 일해. 학교에 네 여동생을 데리러 가겠니?
그 후에, 빵집에 가서 빵을 사서, 집에서 저녁을 먹어.
Elsa: 알겠어요, 엄마.

정답해설: 대화 내용의 흐름에 알맞은 그림의 순서는 b-c-a가 적합하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8.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너 어디 아파? ①, ②, ④, ⑤ ?
B: 다리가 아파. 뛰다가 넘어졌어.

- ① 안 괜찮지 ② 무슨 일이야 ③ 그것이 전혀 내키지 않아
④ 무슨 일이야 ⑤ 무슨 일이야

정답해설: 대화 맥락상 A의 빈칸에는 다리가 아프다는 B의 대답에 대한 A의 건강 상태를 묻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답지 ③번이다.

정답 ③

9.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안녕하세요, Nantes를 방문하고 싶어요.
도시 안내서를 하나 가져가도 될까요?
B: 네, 물론이죠. 그렇게 하세요.
A: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① 별말씀을요 ② 그렇게 하세요 ③ 당신이 틀렸어요
④ 금지되어 있어요 ⑤ 죄송해요

정답해설: A의 Nantes 안내서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B가 '네, 물론이죠.'라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이어지는 B의 빈칸에는 가져가라는 대답이 자연스럽다. 여기서 'Allez-y'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격려나 권고를 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10. 기사문 내용 이해하기

제 아파트에 빈방이 하나 있어요. 저는 4월 1일부터 거거서 거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 월 400유로
○ Montsouris 공원 전망
○ 넓고(10m²) 창문이 있어 매우 밝음

정답해설: 기사문에서 주차 가능 여부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1.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안녕, Philippe! 오랜만이야.
B: 응, 2년이 넘었구나.
근데, a, c ?
A: 응, 나 이직했어.

<보 기>

- a. 무슨 새로운 일 있어 b.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c. 어떻게 지내 d.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정답해설: A가 이직했다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B의 빈칸에는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이 들어가야 자연스러우므로 a와 c가 알맞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12.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여보세요? 내일 정오에 테이블 하나 예약하고 싶습니다.
B: 몇 분이세요?
A: 3명이예요.

- ① 몇 시예요 ② 언제로요 ③ 몇 분이세요
④ 며칠에 오세요 ⑤ 누구시죠

정답해설: A가 3명이라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B에는 인원수를 묻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13. 개인 방송 내용 이해하기

안녕, 내 한국 친구들! Paul이에요. 저는 다시 Paris에 와 있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Tour Eiffel에 올라갈 거예요. Paris는 밤에 훨씬 더 아름다워요. 오늘 오후에 Café de Flore에서 핫초코 한 잔, 그리고 Musée d'Orsay 방문. 저랑 계속 함께 있어요!

정답해설: 개인 방송 내용에서 오후에 Musée d'Orsay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③번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다. 'encore plus beau'에서 encore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훨씬'이라는 뜻이다. **정답 ③**

14. 문자 메시지 이해하기

너희들의 의견이 필요해, 애들아.
어떤 치마가 나한테 더 잘 어울려?
왼쪽 거.
난 꽃무늬 있는 게 더 좋아.
난, 흰색.

- ① 이 치마들 어디 있어 ② 얼마야 ③ 무슨 색깔이야
④ 그녀들은 어떻게 지내 ⑤ 어떤 치마가 나한테 더 잘 어울려

정답해설: 3명의 여성이 문자 메시지 상의 치마 사진 2개 중 선호하는 하나를 선택하여 대답하고 있으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질문으로 '어떤 치마가 나한테 더 잘 어울려?'라는 질문이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5.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이거 뭐야, Louis?
B: 이거 너의 생일 선물이야.
A: 고마워, ①. ③. ④. ⑤ !

- ① 마음에 들어 ② 천만에 ③ 깜짝 놀랐어
④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⑤ 정말 고마워

정답해설: B가 A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고 이에 대해 A가 '고마워'라고 대답한 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천만에'라고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pas de quoi'는 감사 인사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16.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어, Luc! 너 어디 가?
B: Luxembourg 공원에. 나 거기서 약속이 있어.

- ① 너 어디 가 ② 너 어디서 오는 거야 ③ 너는 뭘 원해

- ④ 너 언제 떠나 ⑤ 너 거기에 어떻게 가

정답해설: B가 'Luxembourg 공원에'라고 행선지를 말하고 있으므로 빈칸에 어디를 가는지를 묻는 질문이 들어가야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17. 대화 이해하기

엄마: Léo에게 무엇을 줄까요?
아빠: 개는 오토바이를 갖는 게 꿈이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 아뇨, 절대 안 돼요!

- ① 기꺼이 그러죠 ② 축하해요 ③ 이따가 [좀 전에]
④ 절대 안 돼요 ⑤ 문제없어요

정답해설: 밑줄 친 표현은 '절대 안 돼요'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적합한 것은 pas question으로 단호한 거부를 나타낸다. **정답 ④**

18.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자, 음식이 마음에 드셨나요?
B: 네, 아주 맛있었어요.
A: 다른 것 필요하세요?
B: 네, 디저트 먹을게요. 딸기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 ① 그것 뿐인가요 ② 음료수로는요 ③ 계산서를 드릴까요
④ 다른 것 필요하세요 ⑤ 무엇을 추천하시겠어요

정답해설: 빈칸 A의 질문에 대해 B가 '네, 디저트를 먹을게요'라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묻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19.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공부를 마친 후 무얼 할 생각이니?
B: 온라인 상점을 열고 싶어.
A: 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하는지 알아?
B: 잘은 몰라. 그것에 대해 별로 알지 못해.
A: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보 기>

- a. 좋은 생각이야 b. 그것에 대해 별로 알지 못해
c. 온라인 상점을 열고 싶어

정답해설: 학업을 마친 후 계획을 묻는 A에게 B가 계획을 말하고, 그것에 대해 A가 격려하면서 그 방법을 잘 모른다는 B에게 도와주겠다는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은 c-a-b의 순이다. b의 부정대명사 grand-chose는 '대단한 것'이라는 뜻이지만 주로 부정문에서 사용된다.(ex. Ce n'est pas grand-chose. : 그건 별거 아니야.) **정답 ⑤**

20.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어제 저녁에 참으로 멋진 경기였어! 참으로 좋았어.
B: ②, ③, ④, ⑤. 아주 좋았어.

- ① 유감스럽군 ② 동의해
③ 나도 마찬가지야 ④ 나도 네 의견과 같아
⑤ 나도 너처럼 생각해

정답해설: 경기가 아주 좋았다는 말에 동의하는 내용이므로 ①은 대화의 내용에 어긋나므로 알맞지 않다.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 **정답 ①**

21.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안녕하세요, 부인. 뭔가 찾고 계시나요?
B: 예, 새 노트북을 하나 사고자 해요.
A: 돈을 얼마나 들이실 거예요?
B: 800에서 1000 유로 사이에서요.

- ① 이거 얼마죠 ② 오늘이 며칠이죠
③ 얼마를 드려야 하죠 ④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⑤ 돈을 얼마나 들이실 거예요

정답해설: 노트북을 사러 온 손님에게 예상 지출 규모를 묻고 답하는 상황이므로 ⑤가 정답이다. entre A et B: A와 B 사이에 **정답 ⑤**

[22~26] 문화

22. 축제문화: 글의 내용 이해하기

- 이것은 프랑스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제의 하나이다.
○ 이 축제 때는 도시를 장식하고 시장을 연다. 가장 오래된 축제는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축제다.
○ 이 축제일은 12월 25일이다.

- ① 크리스마스 ② 7월 14일
③ 만성절(모든 성인을 기리는 날) ④ 설날
⑤ 노동절

정답해설: 제시문은 프랑스의 축제 중 크리스마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설명은 세 번째의 12월 25일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23. 사회문화: 함께 하는 나눔 냉장고(les Friigos solidaires)

A: 식당 앞에 있는 저 냉장고, 저건 뭐야?
B: 함께 하는 나눔 냉장고야.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어.
네가 원하면, 음식을 넣어놓을 수도, 또는 가져갈 수도 있어.
A: 식당이 문을 닫았을 때도?
B: 응, 물론이야. 하루 24시간 내내 그리고 일주일 7일 내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이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돼.

<보 기>

- a. 일요일에는 문을 닫아.
b. 밤낮으로 이용할 수 있어.
c. 식당 고객들만을 위한 것이야.
d.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가거나 두고 갈 수 있어.

정답해설: 대화문은 프랑스의 나눔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가난해서 끼니를 굶는 이들을 위해 모두에게 개방된 냉장고에 시간에 제한 없이 음식을 자유롭게 기부하거나 가져가는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24. 프랑코포니: 몬트리올(Montréal)

몬트리올(Montréal)은 인구로는 토론토 다음의 캐나다 제2의 도시이다. Jacques Cartier라는 프랑스인이 1535년에 이 도시를 발견했다. 오늘날 이곳은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프랑스어권 도시이다. Montréal은 여러 축제로 아주 유명하다. 예를 들면, 여름에 재즈 축제를, 겨울에는 이글루페스트(Igloofest)라는 전자 음악 축제를 볼 수 있다.

정답해설: 제시문은 캐나다의 프랑스어권 도시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④의 설명만이 제시문의 내용에 부합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정답 ④**

25. 슈농소 성(le château de Chenonceau)

A: 이 성(城)을 봐. 이젠 ‘부인들의 성’이라 불러.

B: 그래? 왜?

A: 왜냐하면 이곳에서 특히 여성들이 거주했기 때문이지. Diane de Poitiers는 다리를 짓게 할 생각을 했었고, 그 후에 Catherine de Médicis는 그 다리 위에 여러 층을 덧붙이기로 결정을 내렸어.

B: 이렇게 다리 위에 지은 성들이 많아?

A: 아니, 이곳이 프랑스에서 유일해.

- ① 남자들만 이곳에서 살았다.
- ② 이 ‘부인들의 성’은 프랑스에 있지 않다.
- ③ Diane de Poitiers가 성에 몇 개 층을 추가했다.
- ④ Catherine de Médicis가 다리를 놓을 생각을 했다.
- ⑤ 프랑스에서 다리 위에 놓인 다른 성은 없다.

정답해설: 대화문은 다리 위에 건설된 프랑스의 특이한 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건축 방식의 성은 프랑스에서 단 하나뿐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⑤번이 정답이다.

정답 ⑤

26. 문학문화: Le Petit Prince

Le Petit Prince(어린 왕자)는 80년 전에 미국에서 출간된 Saint-Exupéry의 저서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책 중 하나이다. 이것은 270여 개의 다양한 언어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다. 비행사와 어린 소년의 만남에 관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이들의 상상력을 되찾는 법을 가르쳐준다.

정답해설: 제시문은 Saint-Exupéry의 소설 ‘어린 왕자(Le Petit Prince)’에 관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 270개가 넘는 언어로 읽을 수 있다는 것과 이 작품이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 각색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c와 d의 내용이 부합한다. apprendre는 보통 ‘배우다’라는 뜻이지만, 간접목적어 à qn이 있을 때는 ‘~에게 ~을 가르치다’는 뜻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답 ⑤

[27~30] 문법

27. 소유형용사

A: 이 집은 누구 것이니?

B: 내 부모님 것인데, 이것은 그분들의 새 집이야.

정답해설: 해당 문항은 소유형용사에 관한 문항이다. 소유형용사는 소유자의 성(性)과는 무관하게, 관사나 다른 한정사처럼 뒤에 오는 명사의 성수에 따라 형태가 결정된다. 여기서 소유자는 복수인 ‘내 부모님’이고 따라서 ‘그(분)들의’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수식하는 명사 maison이 단수이므로 정답은 leur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28. 관사: 부정문에서 관사의 용법

① 나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

② 샐러드밖에 없어.

③ 난 이제 커피를 안 마셔.

④ 그것들은 생선이 아니야.

⑤ 그녀는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아.

정답해설: 해당 문항은 부정문에서 관사의 용법에 관한 것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묻고 있다.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사항은 부정문에서 직접목적어 앞의 부정관사와 부분관사는 de로 바뀐다는 것이다. ①에서 정관사는 부정문이 되더라도 절대로 바뀌지 않으므로 옳은 문장이다. (aimer는 일반적 경향을 나타내므로 뒤에 목적으로 명사가 올 때,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정관사를 요구함) ②에서 ‘ne ~ que’는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제한된 긍정(=seulement)을 나타내므로 밑줄 친 de는 옳지 않고, 해당 문장은 ‘Il n’y a que des salades.’가 되어야 옳다. ③은 ‘Je prends du café.’에서 부정문으로 바꾼 것으로, 직접목적어 앞에 부분관사 du가 de로 바뀐 것으로 옳바른 문장이다. 그리고 ④는 부정문이지만 부정관사 des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poissons이 직접목적어가 아니라 속사이기 때문이다. ⑤의 de도 긍정문(Elle mange de la viande)의 직접목적어 앞의 부분관사 de la가 바뀐 것이기에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29. 시간 전치사

내가 네게 얘기할 게 있어 ...

그녀는 3시간 전에 저녁 파티에 도착했어.

그녀는 1시간 전부터 춤을 추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5분 후에 돌아갈 거야.

정답해설: 해당 문항은 시간 전치사에 관한 문항으로 dans, depuis, il y a의 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dans + 기간> ‘지금부터 ~후에’라는 의미로 반드시 미래 문맥을 나타내는 시제와 함께 쓰이는데, 현재나 근접 미래가 그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간다. 다음으로 depuis는 과거를 기점으로 하되, 지속의 개념을 지니고 있기에 현재 시제와 결합하면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됨’을 의미하므로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il y a + 기간>은 ‘~전에’라는 뜻으로 과거 시제와 결합하므로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간다. 따라서 ‘c-b-a’의 순서가 답으로 정답은 ⑤이다.

정답 ⑤

30. 부사 tout

- a. 그녀는 무척 행복하다.
b. 그들은 아주 새것의 가방을 가지고 있다.
c. 도서관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

정답해설: 해당 문항은 부사 tout의 용법을 묻고 있다. 원래 부사는 형태 변화를 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그런데 tout가 부사일 때는 남성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여 강조할 때는 불변이지만, tout가 자음 또는 유음 h로 시작하는 여성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여성 형용사에 따라 toute/toutes로 변화한다. 반면에 모음 또는 무음 h로 시작하는 여성형용사를 강조할 때는 tout를 쓰거나, 또는 여성형용사의 성수에 일치시켜서 toute/toutes의 형태 모두 가능하다. a의 경우 ‘Elle est tout heureuse’는 옳은 문장인데, 여기서 toute heureuse도 가능하다. b의 ‘Ils ont des sacs tous neufs’에서 tous는 tout로 고쳐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 tous는 남성복수로 형용사 및 대명사의 용법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형용사 neufs를 강조하는 부사의 위치에 있으므로 틀리다. c에서 tout는 부사 près를 강조하는 부사이므로 올바른 형태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